

<2015년 5월 12일 평범한 하루>

1. 출근

새벽 5시 5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 싫다.

아이패드를 찾아 안치환의 노래를 찾아 누른다. 그런데 '이루마의 연주'가 들린다. 잘못 눌렀나 보다. 다시 잠이 들었다.

6시 10분. '카톡' 소리에 눈을 떴다. 카폴하는 지영샘이다. 어제 대학원 숙제 땀에 밤새웠단다. 못 일어날까 봐 두렵다고, 언제든 출근 가능하단다. 빛의 속도로 출근 준비. 7시에 만나 출근. 평소보다 30분 일찍 만나 여유 있게 양보 운전하며 학교로.

2. 수업

7시 10분. 2학년부에 1등이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수업이 세 시간인데 모두 2학년 '고전'이기 때문이다. 1주일에 네 번 있는 1학년 '자율' 수업은 시험도 안 보고 수행평가도 없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

1교시는 10반이다. 설렌다. 지난 시간에 카잔차키스의 '그리스 인 조르바'를 각자 읽었다. 오늘은 본문 앞부분을 함께 발췌해서 읽으며 탐구하는 시간이다. 오늘은 교과서 pdf 파일을 처음 활용하는 날이다. 다른 선생님들에겐 그게 뭐 대수겠냐마는 나는 처음이다. 최근 몇 년 계속 3학년 수업만 했고, 전에는 e-book 이나 교과서 pdf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교과서를 들고 읽으며 탐구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빔을 이용해 앞에 교과서 pdf파일을 띄워 놓고 수업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동영상 보는 것도 아닌데 노트북을 들고 수업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고 귀찮고 그랬다. 그런데 오늘 용기를 낸 것이다. 헐 근데 교생이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 처음 해 보는 방식이라 좀 당황스럽다. 생각보다 좋다. 칠판 앞 큰 화면에 본문이 보이고 어려운 표현이나 중요한 문장을 발췌해 읽으며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제 기존 방식으로 수업했던 9반보다 학생들이 더 잘 집중해서 듣는다. 계속 활용해 봐야겠다.

3. 일과 중 10분 산책

2교시 수업이 없다. 은진도 없다. 연락해서 10분 산책하기로 했다. 1층에서 만나 학교 한 바퀴를 돌고 학교 앞 뚜레쥬르 가서 어제 아이스크림 얻어먹는 인성부 선생님에게 줄 건강식빵을 하나 사서 돌아왔다. 빵을 주고 학년부 자리로 돌아와 내일 방과후 논술 수업 준비를 했다. 10분 산책하고 왔더니 머리가 맑아져 내용이 잘 들어온다.

4. 즐거운 점심 시간.

1주일에 오늘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친한 선생님들과 도시락을 먹는다. 네 명이 함께 비는 시간이 3교시라 좀 이를 점심 식사를 한다. 장소는 미술 준비실. 오늘 메뉴는

쌈밥이다. 밥은 내가 준비해 왔다. 부엌에서 하는 일 중 제일 쉬운 일이 밥짓기다. 학교 옥상에서 재배하는 야채들이 소중한 우리 먹거리다. 한 선생님이 계란말이와 마늘버섯볶음을 해 오셔서 식탁이 더 풍성하다. 깔끔한 유기농 건강식사를 마치고 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드립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뒤 학년부실로 돌아왔다.

5. 교생 지도.

4교시는 교생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다. 시원한 음료수를 준다. 죠르바가 한 얘기 중 '진짜 여자는 남자에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문장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 내용이 좋았다. 다음 주에 교생이 실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교생이 느끼는 우리 반 학생들의 특징과 지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6. 우리 반 소식

이미 점심을 먹어서 여유있게 점심시간에 이일저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때 인문사회부 선생님이 와서 연지가 그린 포스터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기분이 좋아서 그 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주는 초콜릿을 주었다.

7. 종례 후

청소 지도를 마치고 올라와 학년부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탁구를 치기 위해서다. 마침 학년부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없다. 우리 학교는 탁구 즐기기에 정말 좋다. 일탁구대가 2층 강당 앞에 세 개나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무엇보다 나처럼 탁구에 미친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일만 아니면 무조건 콜이다. 그 중 하나인 구 선수는 오늘 방과후 수업이 있다. 그래서 여자 에이스 김 선수(김샘)와 우리 학교 최고 에이스 이 선생님과 셋이 일단 가능하다.

이 선생님(이샘)과 단식으로 시작했다. 오늘 목표는 7점. 이샘이 21점을 따기 전에 내가 7점 따면 이기는 거다. 그런데 쉽지 않다. 사실은 1점도 힘들다. 샘이 실수하시거나 운이 좋을 때 간신히 1점을 얻는다. 첫 게임은 5점, 겨우, 졌다. 두 번째 게임은 6점, 졌다. 세 번째 게임에서 내가 엄청 잘한다. 10점이나 땀다. 이겼다. 그때 김샘이 와서 2대 1로 단복식을 했다. 두 게임 했는데 땀이 비오듯한다. 눈에 땀이 들어가 따갑다. 김샘이 힘들단다. 감기 때문에. 이샘과 단식 한 게임 더. 다시 2 대 1로 한 게임. 아 힘들다. 5시 20분. 10분 더 기다려 방과후 수업 끝내고 올 구 선수와 처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미안하지만 그냥 올라갔다.

2학년부로 올라와 보니 아무도 없다. 재빨리 옷을 갈아입는다. 남교사가 들어오면 저 멀리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야 한다. 남학생 교실이 있는 층이라서 여자화장실은 아주 멀다. 옷 갈아입고 땀 식히고 있는데 구 선수가 들어온다. 한 게임 하잔다. 미안하다고, 기다리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왔다고, 다음에 좀 늦게 시작해서 꼭 기다리겠노라고 말한다. 실망하는 구 선수. 무지 미안하다.

8. 저녁 식사 그리고 귀가

땀 좀 식히고 방과후 수업을 끝내고 와 있을 은진에게 인터폰을 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다. 원래 홍어를 못 먹는 사람인데 며칠 전 갑자기 삼합이 먹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 그동안 모임에서 경험 삼아 한두 번 먹어보더니 서서히 중독되었나 보다. 그래서 둘 다 저녁 약속이 없는 오늘 삼합을 먹기로 했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검찰청 앞 단골 음식점에 가서 삼합을 주문했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란다. 평소 주로 꼬막정식이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웬일이냐며. 삼합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니 피곤하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씻은 후 침대로. 오늘 하루 끝!!!

Human & Memory Archives